

Reassessment of Library Education in Korea(Educational System)

◆ 特 輯

우리나라 圖書館學 教育의 再評價

— 教育制度를 中心으로 —

崔 昌 均

中央大學校圖書館

I. 머리 말

한 나라의 教育制度는 그 나라의 歷史·文化·社會·經濟的 次元에서 論議되는 것이 常識이며, 教育制度란 教育行政制度, 學校教育制度, 社會教育制度* 등을 包含하여 말하는 것이나 一般의 學校教育制度 即 學制라는 좁은 意味로 많이 使用한다. 韓國의 學制는 現代의 民主主義國家들이 大部分 採擄하고 있는 單線型的 6—3—3—4를 基幹學制로 삼고 있으며 例外로서 初級大學, 專門學校, 醫大 等の 複線型을 加味하고 있다. 이 制度가 韓國의 經濟水準에 過한 것이라고 하여 改正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大局의 見地에서 反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學制以外的 넓은 意味의 教育制度인 檢定考試, 特別 講習이 部分的으로 認定되는 것이 韓國教育制度의 概略이다.

韓國의 圖書館學教育制度도 以上과 같은 全體教育制度의 問題點이 있을 수 있으며 이 問題點에 관한 論議는 筆者와 같은 門外漢이 論及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本特輯의 性格도 아닐 줄로 안다. 따라서 現韓國教育制度가 許容하는 범위에서 論議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자니 學制問題가 아니고 行政制度나 制度運營上의 問題가 된다. 이제껏 많은 분들이 韓國圖書館教育의 問題點에 關於하여 言及하면서도 主로 教育課程 即 教育內容에 置重했거나 司書資格證 發給制度에 관한 것일 수 밖에 없는 事實이 證明하고 있다. 教育課程의 決定이나 運營이 教育制度와 無關한 것은 아니지만 本特輯에서 別途로 다루기 때문에 言及할 수 없다. 또한 外國의 圖書館學教育制度에 관한 남다른 知識도 없어서 比較教育의 次元에서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筆者는 圖書館의 實務者 立場에서 韓國圖書館 教育機關의 現況과 圖書館 및 司書職의 分布 等에 관한 統計를 提

示하여 本格的 論議를 위한 問題의 提起와 한 方法論을 삼고자 한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調查와 分析을 통하여 司書의 需給計劃(定員 및 卒業制度의 改善), 새로운 就業場의 開拓과 이에 따르는 教育內容의 檢討, 圖書館 政策的 次元에서 研究되어 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II. 韓國圖書館學教育機關, 圖書館 및 司書(卒業生)現況

1) 圖書館學教育機關 現況

[表 1]과 같이 博士學位課程에서부터 準司書 講習課程에 이르기 까지 韓國教育制度가 許容하는 各級의 教育機關이 빠짐없이 設置되어 있다. 다만 檢定考試制度가 圖書館法에 없기 때문에 빠져 있을 뿐이다.

2) 卒業生就業 및 圖書館職員 構成 現況

[表 2]와 같이 學校圖書館을 除外한 各級圖書館의 男女別, 館種別, 資格別 司書資格證所持者(卒業生)의 就業實態가 나타나 있다. 圖書館이외의 就業者, 作故, 留學 等の 調查가 어렵다. 學校圖書館의 資格別 男女別 統計가 없는 것이 유감이다.

3) 圖書館 및 司書職 地域分布 現況

[表 3]과 같이 地域分布가 고르지 못하다. 圖書館教育機關의 地域分佈狀況은 너무도 一目性이 있게 偏在하여 있어서 省略하였다.

III. 現況에 나타난 問題點

1) 博士學位課程

國內 唯一의 圖書館學 博士課程의 定員이 2名뿐이

[表 1] 圖書館學教育機關現況

區分	教育機關名	設立年度	定員	1975年 卒業生			卒業生總數			備考
				男	女	計	男	女	計	
博士課程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4	2							
碩士課程	延世大學校 大學院	1957	12				8		8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63	10		1	1		19	19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1	8	3	1	4	12	4	16	
	中央大學校 大學院	1973	10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1		4		4	13	4	17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1973			9	9		9	9	
	小計		≒60	7	11	18	33	36	69	≒假定
學士課程	延世大學校	1957	30	23	11	34	215	197	412	系列別 假定
	梨花女子大學校	1959			49	49		612	612	
	中央大學校	1963	25	13	2	15	111	88	199	
	成均館大學校	1964	30	5	30	35	59	159	218	
	慶北大學校	1974	20							
	淑明女子大學校	1976	30							
	小計		≒165	41	92	133	385	1,056	1,441	
特殊課程(一年)	延世大學校 韓國圖書館學堂	1957					131	77	208	1958—1971 修了者數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1					4	8	12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1973								
	成均館大學校 韓國司書教育院	1965	50	10	18	28	135	93	228	
	小計		≒50	10	18	28	170	178	448	
準司書課程	成均館大學校 韓國司書教育院	1965	50	15	32	47	68	134	202	晝夜合計
	釜山女子專門學校	1970	40		40	40		77	77	
	崇義女子專門學校	1971	80		67	67		124	124	
	韓國社會事業大學併設專門學校	1974	80							
	啓明大學併設專門學校	1974	80							
	小計		330	15	139	154	68	335	403	
講習課程	國立中央圖書館									未調査

※統計數字는 1974學年度(1975년) 現在임.

[表 2] 館種別 職員現況 (司書資格證所持者統計)

館種別	正 司 書			準 司 書			所持者 統計	過不足	司書職	行政職	其他	總計	館數
	男	女	計	男	女	計							
國立中央	11	3	14	14	21	35	49	-2	51	29	100	180	1
國會	20	10	30	3	6	9	39	=	39	80	102	221	1
公共	19	9	28	54	49	103	141	-3	144	157	504	805	108
特殊	54	42	96	14	24	38	134	+9	143	240	249	632	96
大學	184	97	281	67	69	136	417	+57	474	245	536	1,255	136
									851	751	1,491	3,093	342
小計	學校	初							498	43	419	960	2,116
		中							548	65	696	1,309	959
	高								565	59	456	1,080	879
總計	288	161	449	152	169	321	770		2,462	918	3,062	6,442	4,296

※한국도서관통계 1975, 국립중앙도서관, 1975 참조.
特殊圖書館統計에서 1의 差異가 있음.

다. 그것도 博士學位 授與後에 新入生을 募集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博士課程은 圖書館學者나 教授養成의 目的이 主가 되어야지 圖書館學界의 指導級 現職教授가 名譽를 위하여 學位를 받고자 하는 目的으로 運營되어

서는 意味가 없다. 大部分의 大學들이 專任教員의 採用 基準을 博士學位에 두고 있으며 [表 1]과 같이 教育機關이 많이 있으나 有能한 教授가 없으면 圖書館教育은 制度야 어쩔든 不毛地나 다름 없다.

[表 3]

圖書館 및 司書職地域分布狀況

地 域	館 種	公 共 (國立包含)		特 殊		大 學		學 校		計	
		館	司 書 職	館	司 書 職	館	司 書 職	館	司 書 職	館 數	司 書 職 數
서 울		9	159	69	127	50	286	335	156	463	728
釜 山		3	11	7	4	14	36	226	161	250	212
京 畿		16	6	5	2	10	14	462	147	493	169
江 原		9	1	—	—	6	8	188	48	203	57
忠 北		7	17	2	0	6	5	245	64	260	86
忠 南		10	1	1	1	6	19	479	275	496	296
全 北		10	1	1	0	7	14	174	67	192	82
全 南		14	12	1	1	10	17	575	138	600	168
慶 北		17	23	2	2	14	52	769	409	802	486
慶 南		13	2	7	5	9	19	427	101	456	127
濟 州		2	1	1	1	4	4	74	45	81	51
總 計		110	234	96	143	136	474	3,954	1,611	4,296	2,462

※한국도서관통계 1975, 국립중앙도서관, 1975 참조.
 ※特殊圖書館統計에서 1의 差異가 있음.

2) 大學院 課程

現代教育의 흐름으로 보아서 더지 않아 大學院이 高等教育의 中心이 될 것이 展望된다. 現在 圖書學科의 設置가 比較的 오래 된 四個大學과 四大學中 二個大學이 特殊大學院 課程을 두고 있다. 當分間은 專門學校나 大學의 敎職者養成구실도 할 것이나 不遠 高級主題 司書養成의 産室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碩士水準의 司書에 대한 待遇가 制度的으로 保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特히 現職者의 再教育機關인 特殊大學院이 定員未達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大學院課程 特히 本大學院에 優秀한 人材가 進學하여야 하고, 特殊大學院에 많은 現職司書가 修學할 수 있는 制度的 뒷받침이 없는 限 韓國圖書館學界나 館界의 展望은 어둡다. 적어도 現職敎師가 教育大學院을 마치는 待遇는 切實히 必要하다.

3) 學部課程

韓國의 經濟事情이나 其他 與件뿐 아니라 事實上 圖書館學教育의 中核을 이루는 學部課程은 問題의 焦點이 되고 있다. 이제껏 特殊課程에 의한 正司書와 競爭하는데도 苦戰을免치 못했으며 現在까지 男子 385名, 女子 1,056名을 輩出하고 있으나 學校圖書館을 除外한 館種에 勤務하는 全體正司書(特殊課程司書包含)는 男 288, 女 161名으로서 總 449名에 不過하다. 이 點에 대하여는 各大學이 就業實態를 分析할 必要가 있다.

學部課程이 안고 있는 다른 問題는 이미 露出되었고 再論할 餘地가 많은 것은 아니나 現在 韓國大學教育 改革의 바람인 實驗大學制度和 결부하여 運營의 妙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 課程이야 말로 卒業生에 대한 制度的 保障이 現在와 같아서는 人氣없는 教育機關이

될 위험이 있다. 教育內容과 事後制度의 改善을 함께 해야하는 問題가 있다.

4) 特殊課程

圖書館界를 이만큼이나 키우는데 있어서 絶對의 貢獻을 했던 延世大의 韓國圖書館學堂이 1971年 終止符를 찍음으로서 事實上 圖書館教育의 中核으로 부터 벗어나고 成大의 韓國司書教育院만이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다. 一般大學出身을 入學對象으로 하여 自然的으로 主題司書가 되는 長點이 있고, 現職에 있는 非專門職專門職에 多大한 貢獻을 하여 왔다. 學部和 大學院 사이에서 妙한 存在인 特殊課程의 存在價値는 4年別圖書學科의 앞으로의 進路에 따라 決定될 것이나 特殊大學院의 研究課程과 重復되며, 碩士學位所持者의 處遇가 制度的으로 保障될 때에는 斜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5) 準司書課程

準司書課程은 專門學校課程 4個校와 特殊課程의 併設 一個校가 있다. 年間 330名을 輩出할 수 있으며 女性이 壓倒的으로 많다. 所謂 補助司書로서 서울 2, 大邱 2, 釜山 1의 分布를 보이고 있다.

敎師에도 準敎師가 있기는 하나 專門職에서의 「準」이란 用語는 바람직하지 않다. 學校圖書館을 除外한 全國圖書館에 男 152, 女 169名이 就業하고 있다. 圖書館의 司書職對 一般職 比率이 1:6 이상인 館界 實情에서 正司書對 準司書 比率이 4:3 이하로서 거의 비숫하고 있다. 補助司書의 必要性은 絶對的인 것이나 現在 專門學校의 教育課程이나 教育內容은 大學課程보다도 화려하며, 事務補助的인 教育內容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專門學校는 韓國의 經濟實情이나 大學定員

上 奨勵해야 될 立場에 있다. 現場이 要求하는 補助司書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分析하여 반드시 必要한 存在로서의 卒業生을 養成한다면 專門學校 課程은 館界에 크게 貢獻할 수 있는 餘地가 있다. 司書의 格을 낮춘다는 評은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볼 때 상관할 필요가 없다. 有能한 專門司書가 雜多한 일에 時間을 소비하는 것은 敎師가 敎育外的 事務 때문에 講義에 專念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敎育界의 當面課題의 하나다. 그러나 準敎師가 敎師를 돕지 못하는 것처럼 準司書가 準司書資格으로 準敎師처럼 直接 講義하는 것과 같이 相互補助의 이 아니면 司書의 格을 낮추는 일에 不遇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補助司書로 敎育되어야 한다.

6) 講習課程

國立中央圖書館이 實施해 온 講習課程은 公共圖書館을 위시하여 많은 貢獻을 해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다. 反對하는 立場은 司書의 需給上 不足함이 없고 司書의 格을 낮춘다는 것이며, 不可避論을 主張하는 根據는 公共圖書館 特別 地方 公共圖書館에 大學出身 司書들이 就業을 希望하지 않기 때문에 現在에 在職하고 있는 非專門職을 有資格化해서 奉仕能率을 向上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兩論을 綜合해 볼 때 講習課程의 存在理由는 單 邊에 있는 것이다. 公共圖書館의 報酬問題를 改善해야 되는 것이다. 圖書館의 核心인 公共圖書館이 이러한 實情이라는 것은 餘他的 各級圖書館이 아무리 成長한다 해도 國民敎育의 立場에서 艱辛한 일이다. 오히려 公共圖書館 司書는 現職敎師가 再敎育을 받아야 하듯 正司書라 할지라도 一定期間의 義務的으로 講習課程을 두어 他圖書館보다 使命感있고 能力있는 司書를 保有하겠음 國家敎育制度로서 成長시켜야 한다.

Ⅳ. 맺 음 말

以上에서 走馬看山式으로 韓國圖書館敎育機關의 現況을 살펴보고 各級敎育機關에 대한 所感을 적어 보았다. 其外에 敎育機關의 地域偏在 現象, 人力需給面에서도 약간 言及하였으나 問題點의 方向을 提示할 것에 不遇하다.

머리말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敎育制度가 問題가 아니라 制度의 運營에 問題가 있다. 圖書館 敎育機關은 敎育法이 許容하는 各級에 걸쳐 地域偏在는 있으나 不足함이 없다. 오히려 圖書館을 育成發展시키기 위하여 制定한 圖書館法의 司書資格證 發給制度에 問題가 크게 있는 것이다. 準司書와 正司書資格을 取得하는 要件이 公平치 못하고 資格取得後의 아무런 制約과 獎學

의 方法이 없는 社會敎育의 制度가 잘 못 되어 있는 것이다.

館界에서 圖書館學敎育制度에 대하여 舉論이 되는 主理由는 圖書館學科 出身에 대한 實務的 批判에서 오는 것이다. 敎育機關이란 現實生活에 必要한 技術을 習得시킬 義務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치우칠 때는 訓練에 不遇한 것이다. 적어도 敎育이라는 이름 밑에서 이루어진 結果를 評價하려면 專攻한 分野의 職業에 臨하는 姿勢에 있어서 남다른 使命感과 進取的이고 創意的인 思考力을 가졌느냐에 두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肯定的인 評價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原因이 筆者가 지적한 卒業後의 與件에 크게 左右되어 一般職과 다를 바가 없다면 敎育的 機能을 다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反應에 대하여 圖書館學概論이나 圖書館과 社會에 대한 뚜렷한 價値觀의 敎育이 施行되지 않았다는 所論을 들은 바도 있다. 筆者의 常識으로서 는 特定 科目의 問題가 아니라 高等教育全體의 분위기가 知識傳授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젊은이들의 價値觀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이다. 目的意識이 뚜렷하지 않은 學生에게 圖書館學이란 크게 매력있는 世稱出世의 學問이 아니다. 이것이 現職에 까지 반영된 것에 不遇하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韓國圖書館學敎育의 制度上 缺點은 敎育外的인 것이며 運營上의 問題이다. 또한 制度와 그 運營의 主體는 亦示 人間의 思考方式이며, 圖書館 敎育에서의 主體는 敎授이다. 制度를 改善하고, 敎育課程이 名稱이나 內容을 바꾼다 해도 有能하고 바람직한 敎授없이 는 期待하기 어렵다. 圖書館學敎育도 敎師 養成과 軌를 같이 한다. 圖書館學敎育論이 大學院課程에서 뒤늦게나마 시작된 것은 多幸한 일이나 敎育學의 背景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圖書館職이 專門職인 것 以上으로 敎授는 圖書館學에서만 專門이 아니고 敎育方法에서까지 專門이어야 한다. 그리고 敎育은 學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卒業生의 追隨指導는 勿論 協會나 學會活動을 통한 社會敎育의 努力도 敎授의 任務이다. 그런 意味에서 敎授敎育制度가 問題이다. 現制度는 創意的으로 運營만 잘 하면 司書養成에 아무런 問題도 없다. 各級敎育機關이 무엇인가 各已 다른 方向에서 貢獻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 오는 우리 사회
독서 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